

# 전남 합계출산율 8년만에 1위 내줬다

## 2015년 출생·사망통계

전남도의 2015년 합계출산율이 1.55명으로, 지난해 1.5명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무려 8년 연속 지켜왔던 합계출산율 1위는 0.55명을 늘린 세종시(1.90명)에게 빼앗겼다. 광주는 1.21명으로 전국 평균(1.24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17개 시·도에서 서울(1.00명), 부산(1.14명)에 이어 15위에 그쳤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700명으로 전년(43만5400명)보다 3300명(0.8%)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1만2500명, 전남에서는 1만5100명의 새생명들이 지난해 태어났다. 광주는 전년에도 비해 200명이 줄었고, 전남은 300명이 늘었다. 또 광주 7400명, 전남 1만6500명이 세상을 등졌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3

0.05명 늘어난 1.55명... 세종시 1.9명 '1위'

광주 1.21명... 서울·부산 이어 15위

전국 출생아 43만8700명... 3년만에 증가

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인 합계 출산율도 소폭 높아졌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역대 4번째로 적었고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도 여전히 최저출산 국가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고령화 영향에 따라 기대 수명이 다른 연령대의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출생아 수는 2013년(-4만8100명/-9.9%), 2014년(-1000명/-0.2%) 연속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늘었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05년(43만5000명), 2014년(43만5400명), 2013년(43만6500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

률은 8.6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집계돼 전년(1.21명)보다 0.03명(2.9%)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출산 기준선인 1.30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7만57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3.0%) 증가했다.

전남도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올해 260억원을 투입해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다자녀가정 면학 지원, 출산장려 지정기탁 모금 지원, 난임 한방치료 지원,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



출생아 수 추이 (단위: 명)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다. 출산·양육 기반시설을 늘리기 위해 출산정책팀을 신설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의료취약지 분반·외래 산부인과 확대, 직장 어린이집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의 대책도 내놨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가계부채 1200조 돌파

### 지난해 122조 급증

저금리와 부동산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이어가 작년 말 기준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부채재 작년 한 해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122조원이 급증했다.

특히 4분기(10~12월)엔 대출규제 강화를 앞둔 주택담보대출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분기 증가 규모가 41조원에 달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에 18조 원이나 늘어난 잔액이 4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이 120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 기록이고 1200조원선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1년 전인 2014년 말 가계신용 잔액이 1085조3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무려 121조7000억원(11.2%)이 늘어난 셈이다. 이런 연간 증가규모도 사상 최대 기록이다. 지금까지는 2011년에 73조 원이 늘어난 것이 가계신용의 최대 증가규모 기록이었다.

작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3분기 말(1165조9000억원)보다는 41조1000억원(3.5%)이 늘어 분기 증가 규모도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특히 가계신용의 분기 증가 규모는 작년 1분기 13조원, 2분기 33조2000억원, 3분기 34조4000억원에 이어 4분기엔 4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소녀상 앞 수요집회

광주 시민단체들이 24일 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마지막 '광주 수요집회'를 열고 있다. 시민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협상을 규탄하며 지난 1월부터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수요집회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軍 “북 도발시 단호히 응징” 경고

### ‘독재체제 붕괴’ 이례적 언급

우리 군은 24일 북한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청와대 타격’ 위협을 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 최고사령부 성명’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우리의 준엄한 충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계획되고 준비된대로 단호한 응징

을 통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앞으로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 ‘파멸’,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합참은 “북한은 어제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천백배 보복’, ‘저질한 대가’ 등을 운운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했으

며 특히 ‘청와대’와 ‘미국 본토’ 등을 거론하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언행을 통해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엄중한 시점에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 변화는 커녕 적반하장적의 노골적인 위협을 반복하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 군이 김정은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을 노린 ‘참수작전’에 나설 징후를 보일 경우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차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합뉴스

## 10년째...高 3 남학생 키 ‘제자리’

### 10년새...학생 고도비만 2배 ‘경충’

#### 건강검사 표본분석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해마다 조금씩 키가 커지고 있지만 고등학생은 10년 전과 평균키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고도비만이 10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등 ‘뚱보 학생’은 증가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학생 비율,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갈수록 늘어나는 등 식습관은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4일 ‘201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9월 전국 초·중·고교 8만481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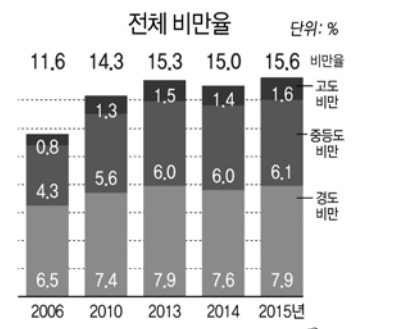
◇고 3 남학생 키 3년간 제자리...비만율은 증가=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키는 평균 151.4cm로, 2010년 150.2cm보다 1.2cm, 2005년 149.1cm보다 2.3cm 커졌다. 초등 6학년 여학생(151.9cm)도 5년 전(151.2cm)보다는 0.7cm, 10년 전(150.3cm)보다는 0.6cm 커졌다. 중 3 남학생과 여학생 키는 각각 169.7cm, 159.8cm로 10년 전보다 1.2cm, 0.5cm 증가했다.

그러나 고 3 남학생 키는 173.5cm로 2010년(173.7cm)보다 0.2cm, 2005년(173.6cm)보다 0.1cm 작아졌다. 고 3 남학생은 2013년 이후 173.5cm에서 변화가 없어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 3 여학생의 키는 160.9cm로 2010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5년(161.0cm)보다는 역시 0.1cm 작아졌다.

평균 몸무게는 초등 6학년 남학생 46.6kg, 여학생 45.2kg, 중 3 남학생 62.3kg, 여학생 54.4kg, 고 3 남학생 69.4kg, 여학생 57.1kg 등으로 10년 전보다 조금씩 늘었다. 학생 비만율이 15.6%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 초중고생 체격 10년간 변화 추이

2015년 4~9월 전국 초·중·고교 84,815명 대상 '201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분석' 결과



전체 비만율 (단위: %)

비만 정도는 경도 7.9%, 중등도 6.1%, 고도 1.6%였다. 비만율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도 비만율은 10년 전인 2005년(0.78%)보다 배 이상 늘었다. 고도 비만이란 표준체중 대비 초과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 학생의 비만율이 남녀 초·중·고생 모두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 비만율은 20%를 기록했다.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아침밥은 건너뛰어=일주일에 한 번 이상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은 초등학생 62.9%, 중학생 74.9%, 고등학생 76.6%로 전년도 61.4%, 72.1%, 74.3%보다 모두 증가했다.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31.9%, 중학생 27.9%, 고등학생 24.0%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 1회 이상 라면 섭취율은 초등학생 모두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초등학생 3.9%, 중학생 12.1%, 고등학생 15.1%로 초·중·고생을 합친 10.5%로 전년(초등 4.2%, 중 12.0%, 고 14.5%)보다 늘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연합뉴스

## 3월부터 도시가스료 9.5% 인하...월 3300원 절감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9.5%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새누리당과 협의의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계획을 확정했다고 새누리당 김경환 정책위의장이 24일 전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현재보다 평균 3300원 절감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약 6563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 1월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이전보다 9.0% 인하하는 등 올해 들

어서만 두 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내렸

다. 2014년말과 비교하면 34.6% 인하됐고 지난해 말보다는 17.5% 내렸다.

이는 규제완화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최대한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생활고를 덜어주려는 조치라고 당 정책위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가 물가는 0.18%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25%포인트가 각각 인하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유가하락 등 원료비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천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 돈보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 NPL 추천증권 위주, 실천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천투자 물건위주로 강의!

**2016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1. 18(월) ~ 2016. 2. 25(목)
- 수업기간: 2016. 3. 3 ~ 2016. 6. 9
- 매주 목요일 10:00~12:00, 19:00~21:00
- 수강료: 18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usun.ac.kr/ligel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062)230-7700~2 지도교수: 송용국 010-9416-1200

###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목조주택 무료 공개강좌**

- 3월 8일(화) 저녁 7시 ~ 9시 광주대학교 호심관 (광주광역시 남구 효곡로 277)
- 3월 9일(수) 저녁 7시 ~ 9시 국립목포대학교 (목포시 남악 캠퍼스)
- 3월 10일(목)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공개강좌 예약 필수, 강의실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전담강사 010-5766-5754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H. 010-5766-5754**

### 2016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271)	광주교육대학교(13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6. 3. 4(금) 09:10 (초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6. 3. 4(금) 14:10 (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6. 3. 5(토) 09:10 (초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6. 3. 7(월) 14:10 (고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6. 3. 31(목) 09:00 (중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6. 3. 31(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6. 3. 5(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6. 1. 27(수)~3. 5(토)	2016. 1. 27(수)~3. 5(토)
수업기간	2016. 3. 4(금)~2016.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6. 3. 7(월)~2016. 8.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 광주교육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특징	·1년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0급~사범부특별기회 부여)	·1년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0급~사범부특별기회 부여)
문의	·문 의: 062)2850-3582~4 ·지도교수(선생명): 010-3614-4160	·문 의: 062)2620-4243 ·지도교수(선생명): 010-3614-4160
행사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a href="http://always.kwu.ac.kr">http://always.kwu.ac.kr</a>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a href="http://www.gnu.ac.kr/">http://www.gnu.ac.kr/</a>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면접준비실전과정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사·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정확 문의하기엔 자세한 안내를 우선하여 드립니다.